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MARCH 2015



세상의 모든 전시들

all the world's exhibitions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102
201503

Belonging to a Young Man of Oxford)에 이어, 오는 3월 8일 막을 내릴 <Love is Enough: William Morris&Andy Warhol>전에서 1800년대 활동한 영국의 공예가 모리스와 현대미술에서 빠질 수 없는 이름인 워홀의 작품을 동시에 조망하며 시대를 넘어선 두 거장의 합일을 꾀하는 중이다. 이 두 전시 직후에는 데보라 델마(Debora Delmar)라는 작가를 소개하는 <Upward Mobility>(3.28-5.17)전을 준비 중인데, 멕시코의 이 신진예술가가 앞서 소개된 세 거장의 명성을 어떻게 이어갈지 유추가 주목된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서펀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 이하 서펀타인)를 살펴보면, 봄 분기 카메룬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파스칼 마르틴 타유(Pascale Marthine Tayou)의 개인전(3.4-5.17)이 준비돼 있다. 이 전시는 그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신작들을 선보이는 자리이며, 동시에 미국의 구상화가 레온 골럽(Leon Golub)이 1950년대부터 2004년 죽기 전까지 제작한 하이라이트 작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여름에는 리넷 이아돔-보아케(Lynette Yiadom-Boakye)와 듀안 한슨(Duane Hanson)의 개인전(6.2-9.13)을 각각 나란히 개최하는 한편, 매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커미션 시리즈인 2015년 서펀타인 파빌리온은 스페인 건축가 셀가스 카노(Selgas Cano)가 디자인해 6월부터 10월까지 관람객을 맞이한다. 선 공개된 사진 속 현대적인 색감이 돋보이는 새 파빌리온은 갤러리 뿐 아니라 갤러리가 위치한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자유분방한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펀타인과 함께 영국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화이트채플 갤러리(White Chapel Gallery)는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래 세계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온 팔레스타인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에밀리 야시

르(Emily Jacir)의 개인전(9.30-12.13)을 2015년 마무리 전시로 정해 선보인다.

한 편, 과거 몇 년간 상업 갤러리들이 앞다투어 기획전에 몰두했던 것과 달리 다시 개별 작가에 집중해 프로모션하기 시작했다. 런던에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굴지의 상업 갤러리 가고시안(Gagosian)의 브리태니아 스트리트 지점은 현재 리차드 세라의 개인전 <Richard Serra: Backdoor Pipeline, Ramble, Dead Load, London Cross>(2014.10.11-3.4)를 전시 중에 있으며, 이란 출신의 현대미술가 Y.Z. 카미(Y.Z. Kami)의 회화를 소개하는 개인전(4.9-5.30)이 곧바로 바톤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데이 스트리트 지점에서는 <Henry Moore: Wunderkammer- Origin of Forms>(2.9-4.2)전을 개최 중으로,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의 추상조각을 집중 조망하고 있다. 하우스앤워스(Hauser&Wirth)에서는 오는 여름 <Roni Horn>(6.5-7.25)전을, 가을엔 <Anj Smith>(9.4-10.24)전을 만날 수 있다. 로니 혼은 2009년 테이트 모던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했던 미국인 시각예술가로,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작가 특유의 감성을 발휘한 미니멀하면서도 절제된 그의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며, 안제이 스미스는 기괴하면서도 장식적인 회화를 그리는 영국의 여성화가로, 연이어 열릴 전시에서 두 작가의 구별되는 특성이 더욱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맨체스터에 위치한 상업화랑 아트스 갤러리(Artzu Gallery)는 팀 가너(Tim Garner), 칼 멜레가리(Carl Melegari), 적나라한 방식으로 인물들을 그리는 니콜라스 에더쇼(Nicholas Eddershaw), 애나 길레스피(Anna Gillespie) 등 아직은 조금 낯선 이름의 젊은 예술가들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개인전을 차례로 연다.

미술뿐만이 아니다. 시각예술가와 패션계 거장 사이의 특별한 만남도 마련돼 있다. 데이

트 브리튼은 예술가 닉 와플링턴에 의해 기록된 영국이 낳은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모습을 담은 <Nick Waplington: Alexander McQueen>(3.10-5.17)전을 앞두고 있으며, 영화배우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5. 로니 혼(Roni Horn) (Remembered Words-(Clutch)) 2013 종이에 곡수, 수채, 흑연, 일본 필러, 아라비아 고무 각 38.1x27.9cm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Wirth © Roni Horn Photo: Genevieve Hanson